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주님앞에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의 날씨는 연일 햇빛을 전혀 볼 수 없는 어두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은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선교기도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 1> 현재 러시아의 경제사정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서방의 경제재제이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젊은이가 뒤에 가방을 매고 알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모습은 인터넷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직접배달하여 주는 알바입니다. 한국의 택배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방을 매고 길거리를 다니는 청년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2> 체르바코바 나타샤



저희 '새피조물교회' 체르바코바 나타샤가 드디어 자주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것이나타샤에게는 기적입니다. 나타샤는 소아때부터 당뇨병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인슐린을 스스로 투입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혼후에 아기를 갖고 싶었지만 번번히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당뇨병때문이었습니다. 이제 40나이가 넘어서면서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하는가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기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기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온 교우들이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이 아기를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는 병원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낳고 병원문밖에 까지 아기를 데리고 나오면 아기의 보호자와 가족들이 아기를 받아가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진도 찍어주고 합니다. 재미있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 3> 고려사람교회 창립17주년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많으니 아이들이 풍성하여 참 좋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결국 이곳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은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이민을 온 가정은 가장이 이곳에서는 일할 곳이 없으니 아빠는 한국에서 일하고 가족은 이곳에 남아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 고려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모습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4> 쌍트빠째르브르그 비전티디 11기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캔디데이트27명 작년보다는 적었지만은 은혜는 더욱 풍성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감사와 은혜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은혜는 어려움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 기도제목

- 러시아내의 개신교의 예배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 고려사람교회의 QT훈련과 가정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가운데 잘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시간이 나면 알바를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성경공부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쌍트에서 비전티디를 잘 섬길수 있는 팀멤버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 비전티디를 통하여 쌍트의 여러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러시아 쌍트빠째르브르그 선교사

김도수/정희 선교사 드림